**NS홈쇼핑, 오늘 '제주 블루스' 방송**

NS홈쇼핑이 15일 오후 4시30분 '제주 블루스'를 방송한다. 뿔소라를 장으로 담궈 탱글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 '제주 김녕 해녀마을 뿔소라장', 제주 앞바다의 자연산 톳으로 만든 '제주 김녕 해녀마을 톳장'을 판매한다. 또 제주 오름에서 자란 연한 고사리를 깨끗하게 손질한 '제주 어랑진 고사리', 특대사이즈만 엄선한 '제주은갈치'도 선보인다.

## 美 최악의 인플레 쇼크…글로벌 금융시장 강타

# "주식·코인 대폭락…'빚투' 투자자들 어쩌나"

〈빚내서 투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암호화폐의 심상치 않은 폭락세가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예상을 웃도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영향이 크다. 전년 동기 대비 8.6%가 올라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14, 15일(현지시간)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은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왼쪽)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의 비트코인 가격. 뉴시스

**1년 7개월만에 코스피 2500선 붕괴**
**비트코인, 최고가 대비 60% 하락**
**"물타기해도 손실" 투자자들 울상**
**美 긴축 예상…대출자 상환 부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금회수 이어져**

**●코스피 2500선·비트코인 3000만원 붕괴**

14일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됐다. 전 거래일보다 11.54p(0.46%) 떨어진 2492.97에 장을 마치며 전날(2504.51)에 이어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5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11월13일(2493.87)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19p(0.63%) 내린 823.58에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어 비트코인 가격 3000만 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오후 4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933만5000원 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2000만 원선 진입은 2020년 12월29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8270만 원) 대비 약 6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알트코인의 대표주자인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158만 9000원 대에 거래됐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최고가(580만 원) 대비 약 70% 이상 하락한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기업 셀시우스에서 '코인런(투자자 대규모 이탈 사태)'이 발생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셀시우스는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자금리로 코인 담보 대출까지 해줘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장세를 겪으며 가격이 하락한 데다, 셀시우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 코인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 속에 투자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 지수가 3200대일 때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일단 돈을 불려보자는 마음으로 1억 원 정도를 우량주 위주로 투자했는데, 현재 30% 가량 잃어 주식 잔고가 7000만 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지, 물타기(하락세에 맞춰 자금을 더 투자해 평단가를 낮추는 기법)를 해야 할지, 증권사 앱을 삭제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투자자는 "지난해 11월 최고점 분위기에 취해 12월 초 크리스마스 랠리를 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후 계속 물타기를 해도 손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존버(이익이 날 때까지 버틴다)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불신이 커졌다. 아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14, 15일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로 쏠리고 있다.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은 기본이고, 5월 CPI 쇼크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 후폭풍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긴축이 시장 예상치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자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2025년 연간 페이 이용액 100조 원 목표"
### 네이버파이낸셜, 가맹점·금융서비스 확대

박상진 대표

네이버파이낸셜은 2025년까지 연간 페이 이용액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페이'의 결제처를 네이버 외부로 확대한다. 온라인은 콘텐츠·보험 등 정기결제, 여행·문화·교육 등 생활결제, 해외 등 외부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은 올해 중 의료·문화생활·모빌리티 등 생활업종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다. 연내 대만 라인페이 연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현지 결제 연동도 확대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도 확장한다. 대상을 네이버 생태계 온라인 SME(중소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생태계 밖의 SME로 넓혀 2025년까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SME를 10만에서 50만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6월 중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을 출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핀테크 최초로 시작한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사용자와 SME가 금융이 닿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이 찾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롯데관광개발, 최대 규모 홋카이도 전세기 운영**

롯데관광개발이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홋카이도(사진) 단독 전세기 운항에 나섰다. 8월 한 달 간 총 8회 출발하는 홋카이도 단독 전세기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에어서울을 이용해 3박4일과 4박5일 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롯데관광개발측은 리오프닝(경제 재개)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 및 여름 휴가시즌을 대비해 보다 많은 편수의 단독 전세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23일까지 여행상품 조기 완납시 최대 20만원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 단도박을 통한 일상찾기…도박중독자를 위한 '행복캠프'

**복권 과몰입 예방 참여형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상담·필라테스 등 구성**
**가족들과 참여해 치유 효과 극대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가 4일부터 5일까지 전남 불태산 글램핑장에서 복권 과몰입 예방 참여형 프로그램 '2022 행복캠프'(사진)를 개최했다. '단도박을 통한 일상의 행복 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도박중독자들의 단도박에 대한 의지 강화와 가족관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박중독자, 복권 과몰입자와 동반 가족들 총 67명(25가구)이 참가했으며, 청소년 중독자(1가구)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캠프는 레크리에이션과 치유프로그램, 마음 단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서진숙 단국대 상담학과 교수의 전문 치유프로그램은 도박중독자 개인의 회복 뿐 아니라 함께 고통받은 가족의 상처도 어루만져 도박중독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마음 단련 프로그램인 '필라테스'와 '명상'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캠프참가자 김성민(가명)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온 기분으로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박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복권에 과몰입되어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도박중독은 혼자만의 힘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빠르고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단도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LG 에이머스', 청년 AI 인재 연간 4000명 양성

**학력·전공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전문 교육 제공…해커톤 참가 가능**

LG가 청년 대상 AI(인공지능)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LG 에이머스(Aimers)'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4000명 이상의 청년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하는 LG 에이머스에는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개월 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들은 7월 한 달 동안 배석주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 강제원 이화여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원종 서울대 지능정보융합학과 교수, 문태섭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상학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 김경식 LG이노텍 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 AI 전문가 6인의 핵심 이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 이론 기반의 지식 습득을 넘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LG AI 해커톤' 참가도 가능하다.

해커톤 참가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LG의 산업 현장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자율주행 레이더 센서'와 관련돼 있다. 해커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LG 계열사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니 기자 mythuki@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돌연사 부르는 '부정맥', 정기 심장검사해야
### 증상 초기에는 금연·금주·카페인 주의 필요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부정맥이라고 부른다. 맥박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빠른 박동을 이루는 빈맥, 느린 박동을 이루는 서맥 등이 있다.

부정맥 등으로 심장의 운동 리듬이 무너지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호흡곤란, 흉통, 피로감 등을 경험한다. 최악의 경우 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정맥 증상은 건강한 일반인에게도 흔하게 발생한다. 선천적인 문제 외에 흡연, 과음, 카페인 중독, 심근경색 및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홀터 심전도 검사'라고도 불리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는 일상 속 어지러움, 실신, 가슴 통증 등과 부정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검사 프로그램이다. 환자는 내원해 기록계를 부착한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 다음 날 병원에서 기록계를 떼어내면 심장 전문의는 24시간 기록된 내용을 판독해 심장 질환을 진단한다.

부정맥 증상 초기라면 금연, 금주, 약물 복용 중단, 카페인 섭취 감소 등의 원인 교정을 시행한다. 초기를 벗어난 경우라면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 제세동기 및 인공 심박동기 치료, 전극도자 절제술, 외과적 절제술,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심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필수적이다. 부정맥을 예방할 명확한 수칙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의정부심장내과 전희경성모하트내과 **전희경** 원장